

“민주 다수의식 이래 의회민주주의 붕괴”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연금·노동·교육 반드시 개혁돼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자체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항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 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야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침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힘 전대 이후 당정협의 활성화 방침

여권발 ‘당정 일체론’ 힘 신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의 대폭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정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당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당정 관계가 어떤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뭐하러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당정 분리 재검토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은 전일 잇따라 ‘당정 일체론’을 강조, ‘탄핵’ 언급 논란을 빚은 김기현 후보 염호에 나섰다 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는 정례적인 고위 당정 협의회는 몇 주째 중단된 상태다.

당에서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공개 협의를 자제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협의회뿐 아니라 실무 당정 회의도 과거보다 크게 활성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까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정 회의도 더 강화하고, 당정이 본격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이 정권을 잡고 정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사실 당정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며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명예 당직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당정 분리 원칙을 반영한 국민의힘 당헌상 대통령의 당직 겸임은 금지돼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의 명예직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며, 당무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꺼내기에는 좀 이른 얘기 아닌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지원 결의안 채택

세비 3% 의연금 각출건도 처리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이 담겼다.

이어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 및 시리아에 대한 긴급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희용·정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여야는 이날 의원들의 2월분 일반수당의 3%를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내는 내용의 ‘국회의원 의연금 각출의 건’도 처리했다.

올해 국회의원의 월 일반 수당은 690만7300원으로, 의원 1인당 약 20만7210원의 의연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어 강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에 대한민국의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구호 물품 추가 지원과 앞으로의 구호·재건 사업 준비를 위한 구호대 2진 파견에 관한 구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진 구호대의 활동 기간이 17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교대할 수 있는 2진 파견을 정부가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국힘 컷오프 이후 김기현 41%·안철수 27%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최고위원 조수진·김재원 1·2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예비경선(컷오프)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경쟁자 안철수 의원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고성국TV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 후보가 41%, 안철수 후보가 27%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p)로, 김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는 결과다. 천하람 후보(13%), 황교안 후보(12%)가 뒤를 이

었다.

지난 10일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로 당권 주자가 4명으로 압축되기 전인 지난달 29~30일 같은 조사에서 31%를 기록했던 김 후보의 지지도는 10%포인트 올랐고, 안 후보는 35%에서 8%포인트 내렸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 후보가 52%로 안 후보(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 43%, 안 후보 51%였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는 조수진(17%), 김재원(14%), 민영삼(13%), 김병민·김용태·허은아(이상 8%), 정미경(7%), 태영호(4%) 후보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시스템(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